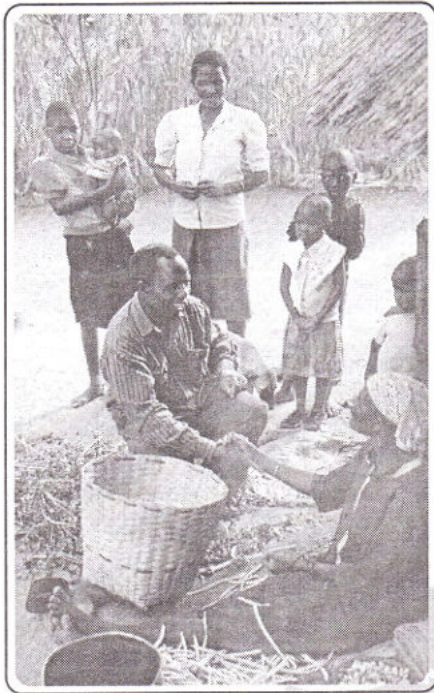




케리그마

■ 케리그마(KERYGMA)란 그리스어로 복음선포라는 뜻임



천주교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051) 583-6314~5

선교란 무엇인가!



본당신부 김 기 홍 (베르나르도)

올 한해에도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동안 해외선교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고 노력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있지만 해외선교는 중요한 복음선교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마르16/15)의 말씀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현대의 복음선교」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곧 복음 선교에 있음을 천명하였다(14항). 이에 교회는 복음 선포를 근본 과업으로 알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기쁜 소식에서 소외된 채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복음화)의 원천이 하느님의 사랑에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1요한 4/16) 그 사랑은 본성상 자기 확장의 경향이 있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역시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외향적 성향입니다.

하느님의 외향적 성향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 창조에서 잘 드러 납니다. 인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당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고(창세1/26) 그 사랑은 더 나아가서 인간을 당신의 생명에 참여시키고자 하시는 구원계획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성자를 이 세상에 파견하신다(선교 교령 3항). 이는 사랑의 파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의 선교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원초적인 근원은 하느님의 원초적인 사랑에 있습니다(선교 교령 2항).

복음 선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성립되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 생활의 증거, 명백한 교리 전달, 마음의 귀의, 성사배령, 사도직 활동등이 있으며 물론 이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좋은 선교 방법은 기도와 희생, 권면과 생활증거(표양)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본당의 해외 선교후원회는 위에 언급한 선교의 의미와 방법을 잘 깨달았다고 봅니다. 비록 해외에 있는 신자나 비신자를 직접 보고 만나지는 못하였어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외에 있는 모든 신자와 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그것을 모아 해외 선교지에 보내는 것은 어떤 선교보다 뒤지지 않는 훌륭한 선교라고 생각되며,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참된 생활의 증거(표양)라고 봅니다.

끝으로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해외 선교후원회에 가입하시어 여러분들의 기도와 희생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생활 증거(표양)를 해외 신자들과 비신자들에게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선교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

강 기 수 (마태오) 후원회장

얼마 전 어느 수도회에서 우리 후원회에 보내온 감사의 편지 글귀 중에 "보내준 선물을 이곳 가난한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며 귀 본당의 훈훈한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신 분들 한분 한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라는 글귀를 읽고 잠시 마음이 숙연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해외선교후원이라는 간접적인 선교와 봉사라는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받는 것보다 더 큰 주는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는가를 반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새해에도 교우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평화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를 위해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작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성직자, 수도자들의 만남을 통해 그분들의 선교현장의 노고를 직접 듣는 기회도 가졌고, 각 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보냈고, 8월에는 몽골수도회에 40톤 분량의 후원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현지 언론에 소개되고 해외선교에 대한 소식이 아시아 가톨릭뉴스와 평화신문에 소개되는 등 많은 홍보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원회 활동소식을 듣고 멀리 아프리카 콩고와 네팔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식도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교우 한분 한분의 관심과 사랑의 나눔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후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후원금이 모자라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우리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교우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하느님 모습에 다가가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해외선교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오 25:40)라는 하느님의 외침에 우리는 지체말고 응답해야 합니다.

해외선교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기에 현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와 우리들처럼 후원하는 교우들의 연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본당에 조직된 해외선교후원회 무엇보다 중요한 선교활동이고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산교구내 자발적으로 조직된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그 어느 활동보다 보람있는 선교활동이고 값진 일이라 여겨집니다.

남산본당 해외선교후원회 발전 여부는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작은 것,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보십시오.

아울러 여러분이 베푸시는 것보다 더 큰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2006년도 결산보고

1. 보고기간 :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 설립일자 : 2000년 8월 2일
3. 회 원 수 : 207명
4. 운영위원 :

구 분	성 명	세 레 명	연 락 처
지도신부	김 기 홍	베르나르도	583-6317
회 장	강 기 수	마 태 오	514-8158 / 011-848-2461
총 무	조 강 현	가 밀 라	581-5770 / 011-9521-8024
위 원	김 명 복	에 드 몬 드	516-5826 / 010-6712-5826
위 원	이 희 영	베 드 로	514-9750 / 017-556-9750
위 원	조 진 호	보나벤뚜라	517-4517 / 011-9516-0119
위 원	조 일 제	마 르 코	508-1975 / 019-516-1975
위 원	김 태 익	라우렌시오	514-2241 / 011-562-4130
위 원	박 호	요 한	583-4262 / 011-9531-7466
위 원	이 경 희	비 비 안 나	581-8929 / 016-9665-8929
위 원	정 재 향	로 사	508-1975 / 019-234-1979

5. 회계보고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전년도 이월금	286,876	예수선교수녀회 (콜롬비아)	1,000,000
회비 입금액	10,755,000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해외파견선교사지원)	1,000,000
은행이자	1,653	살레시오수도회 (몽골-이호열신부님)	1,000,000
		예수그리스도수녀회 (에콰도르)	1,000,000
		베트남 호치민성당 (부산교구 이창신신부님)	1,000,000
		살레시오수도회 (아프리카수단-이태석신부님)	1,000,000
		몽골 (샬트로 바오로수녀회외 4개소에 물품과 함께)	1,000,000
		사랑의 선교회 (캄보디아-에이즈퇴치)	1,000,000
		예수선교수녀회 (콜롬비아)	1,000,000
		사도 성요한수도회 (아프리카 콩고)	1,000,000
		후원회 미사예물 (매월 첫주 9시 미사)	200,000
		지출 합계	10,200,000
		차기 이월금	843,529
수 입 합 계	11,043,529	총 합 계	11,043,529

2006년 해외선교 후원회비 납부 현황

(기간 : 2006. 1. 1. ~ 2006. 12. 31.)

번호	성명 / 세례명	회비입금
<1구역>		
1	정차순(베로니카)	12,000
2	박봉원(엘리시오)	110,000
3	주규원(예로니모)	35,000
4	김벽연(바실리오)	24,000
5	강호구(제르비노)	55,000
6	곽근희(요셉파나)	24,000
7	정상환(프란치스코)	24,000
8	박외숙(마리스텔라)	110,000
9	이헌식(다니엘)	30,000
10	윤정필(베드로)	12,000
11	박유석(요셉)	3,000
12	장정표(라파엘)	10,000
<2구역>		
13	김경란(로사)	20,000
14	구정현(엘리아)	60,000
15	박정은(프란치스코)	55,000
16	백순임(엘리사벳)	24,000
17	위명복(요셉)	120,000
18	박화춘(요한)	120,000
<3구역>		
19	이영화(루시아)	36,000
20	최병식(안토니오)	24,000
21	설순심(안나)	36,000
22	정영혜(세실리아)	60,000
23	박기석(그레고리오)	22,000
24	이귀성(모니카)	24,000
25	한성광(레오)	60,000
26	김래익(라우렌시오)	5,000
<4구역>		
27	천춘식(니콜라우)	60,000
28	안우규(유스티노)	55,000
29	김홍주(베드로)	50,000
30	김균태(알로이시오)	24,000
31	유순지(율리아나)	22,000
32	이동희(프란치스코)	10,000
33	남여옥(카타리나)	55,000
34	신현권(아우구스티노)	24,000
<5구역>		
35	김해덕(젤마나)	36,000
36	정경주(아네스)	60,000
37	허혜경(안젤라)	110,000
38	이세종(베네딕도)	45,000
39	성경훈(필립보)	30,000
40	강순조(아브라함)	33,000
41	조진호(보나벤투라)	120,000
42	김동준(가브리엘)	24,000

번호	성명 / 세례명	회비입금
<6구역>		
43	강기수(마태오)	120,000
44	이봉희(요셉)	60,000
45	손영식(로벨로)	20,000
46	민병의(바실리오)	60,000
47	김봉자(아나다시아)	120,000
48	정진호(베드로)	24,000
49	김태운(파바아노)	120,000
50	김연두(야고보)	18,000
51	박혜경(나탈리아)	33,000
52	김중곤(암브로시오)	33,000
53	김위규(요셉)	60,000
54	조철용(시몬)	22,000
55	이동본(프란치스코)	10,000
56	박경옥(요셉)	55,000
57	정상필(요셉)	20,000
<7구역>		
58	서국남(카타리나)	55,000
59	이봉춘(세실)	60,000
60	배봉희(노엘라)	24,000
61	이승화(안토니오)	20,000
62	홍은숙(모데스타)	55,000
63	박성동(안드레아)	10,000
64	이정자(막달레나)	20,000
65	김이경(미카엘)	50,000
<8구역>		
66	오경연(세실리아)	110,000
67	김점숙(로사리아)	120,000
68	이학열(베르나르도)	110,000
69	박희찬(요셉)	10,000
<9구역>		
70	김동애(아델라)	55,000
71	김성도(대건안드레오)	12,000
72	박기봉(프란치스코)	80,000
73	이장희(로마노)	80,000
74	김기택(세레자 요한)	50,000
75	김현민(소피아)	22,000
76	이우락(글레멘스)	36,000
77	임영호(토마스Aq)	36,000
78	임영희(토마스Aq)	24,000
79	김재환(바실리오)	36,000
80	장병수(그레고리오)	24,000
81	정정순(율리아나)	24,000
82	이갑승(라파엘)	120,000
83	권명희(세실리아)	24,000
84	이순분(히야친타)	24,000
85	김의용(요왕)	160,000
86	박기순(바오로)	24,000
87	장두채(루카)	22,000
88	김숙혜(에바젤리아)	60,000
89	류해전(스테파노)	100,000
90	양수남(크리스티나)	22,000
91	배경준(다두)	110,000
92	박기우(요한)	60,000
93	김덕한(루시아)	120,000

2006년/남/부/현/항

번호	성명 / 세례명	회비입금
<10구역>		
94	서미영(아네스)	120,000
95	김기일(바오로)	40,000
96	김기일(요한)	24,000
97	김기일(요한)	240,000
98	이재수(즈가리아)	50,000
99	김명기(라우렌시오)	2,000
100	장기수(발트로메오)	5,000
<11구역>		
101	박영자(글라라)	20,000
102	강안(크리스티나)	6,000
103	김기일(요한)	36,000
104	김기일(아네스)	36,000
105	김기일(요셉)	60,000
106	김기일(루시)	36,000
107	김기일(요셉)	45,000
108	조석제(베드로)	24,000
109	박선호(요한)	24,000
<12구역>		
110	김명복(에드문드)	120,000
111	이희영(베드로)	120,000
112	박영준(안드레아)	36,000
113	박영준(레지나)	36,000
114	유동준(루카)	60,000
115	김기일(리디아)	220,000
116	김기일(바실리)	24,000
117	김기일(글라라)	24,000
118	김기일(레오폴도)	36,000
<13구역>		
119	곽태훈(야고보)	9,000
120	김기일(도미니카)	33,000
121	이분자(크리스티나)	24,000
<14구역>		
122	이정희(호주아네스)	24,000
123	황숙자(유리안나)	20,000
124	이경희(비비아나)	120,000
125	박정희(소피아)	20,000
126	김기일(세바스티안)	55,000
127	김기일(안젤라)	55,000
12	차정영(수산나 데레사)	24,000
<15구역>		
129	박정애(마르타)	36,000
130	윤지호(요카킴)	24,000
131	강신수(예로니모)	55,000
132	김기일(우슬라)	22,000
133	김기일(카타리나)	60,000
134	윤기훈(모니카)	24,000
135	김기일(프란치스코)	55,000
<16구역>		
136	김기일(소화 데레사)	15,000
137	이희영(유스리나)	9,000
138	이희영(베드로)	18,000
139	김기일(프리모)	14,000
140	김기일(안나)	2,000
141	이희영(요한)	24,000
142	신기일(폴레타)	300,000
143	김기일(루돌프)	6,000
<17구역>		
144	유시순(마르타)	30,000
145	유권호(안셀모)	60,000
146	오복선(제노베파)	124,000
147	전순현(안나)	110,000
148	신기일(올리비아)	24,000
149	신기일(마리아)	10,000

번호	성명 / 세례명	회비입금
<18구역>		
150	박종근(알렉시오)	60,000
151	조일제(마르코)	110,000
152	김옥(루카)	200,000
153	이철주(그레고리오)	36,000
154	김성환(요셉)	240,000
155	변상길(가시아노)	120,000
156	우재권(요셉)	35,000
157	이정희(데라사)	24,000
158	김영남(베드로)	40,000
<19구역>		
159	이세영(리노)	60,000
160	김영희(마르타)	60,000
161	박행규(헬레나)	24,000
162	강희선(아타나시오)	55,000
163	설상국(스테파노)	60,000
164	조순량(라파엘라)	20,000
165	서정자(마리아)	22,000
166	조찬희(엘리사벳)	24,000
167	양병국(알베르토)	24,000
168	우항기(데레사)	60,000
169	서년순(소화 데레사)	26,000
170	김영희(카타리나)	36,000
171	김성덕(대견안드레아)	24,000
172	길창순(시몬)	24,000
173	나모성(시몬)	36,000
174	최재수(요한)	12,000
<20구역>		
175	조강현(가밀라)	50,000
176	이광수(유스티노)	50,000
177	권오기(그레고리오)	60,000
178	여순자(세시리아)	55,000
179	이태현(프란치스코)	55,000
180	손창곤(바오로)	18,000
181	최민혜(미카엘라)	36,000
182	최준대(시몬)	55,000
<21구역>		
183	이영수(크리스티나)	24,000
184	장창오(요한)	24,000
185	김종자(엘리사벳)	50,000
186	박태영(세레자 요한)	33,000
187	이종기(라우렌시오)	55,000
<22구역>		
188	이희경(글라시아)	24,000
189	이경희(소피아)	18,000
190	김대경(바오로)	36,000
191	박보영(T.아퀴나스)	110,000
192	김혜자(엘리사벳)	30,000
193	강복자(안젤라)	30,000
<기타구역>		
194	송기윤(그레고리오)	24,000
195	박기호(베드로)	8,000
196	민경남(데레사)	24,000
197	최영수(요셉)	30,000
198	문주덕(사도요한)	20,000
199	최종자	600,000
200	장종휘(마리아나)	60,000
201	조성묵(올리비아)	10,000
202	박성희(세베로)	20,000
203	강정순(안나)	2,000
204	김영환(시몬)	5,000
205	성서마르코반	20,000
206	로사리오 성모 Pr.	80,000
207	성모여고2-9반일동	30,000
207명		10,755,000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2006년도 활동사항

(기간 : 2006. 1. 1 ~ 2006. 12. 31)

	후 원 단 체 / 국 가	내 용
1	예수선교수녀회 (콜롬비아)	무료급식, 의료시설
2	한국외방선교수녀회(파푸아뉴기니)	해외파견 선교사지원
3	살레시오수도회(몽골)	빈민선교, 이호열 신부님 지원
4	예수그리스도수녀회(에콰도르)	빈민선교, 진료소운영지원
5	호치민성당(베트남)	생활 및 교육여건 개선, 이창신 이나시오 신부님
6	살레시오수도회(아프리카 수단)	빈민선교, 의료사업 이태석 신부님 지원
7	샬트르 바오로수녀회외 4개소(몽골)	빈민선교, 교육개선 등으로
		물품: 의류, 이불, 가전제품 생필품등 339BOX
		후원물품: (주)학산 빅토로회장 이원목(베드로)
		신발,의류 시가 약 9,000만원 상당 지원
8	사랑의 선교회(캄보디아)	빈민선교, 의료비(에이즈등) 지원
9	예수선교수녀회(콜롬비아)	무료급식, 새삶센터 지원
10	사도성요한수도회(아프리카 콩고)	빈민선교, 고아
11	후원회원 미사봉헌	매월 첫째주 9시 미사 10회
12	매월 후원운영위원회 모임	매월 둘째주 금요일 12회

▶ 목 상 코 너

예수여 선교 수녀회 기도문

나자렛의 성모님,
 나자렛 일터에서의 정겨운 시선과
 가나 혼인잔치 때의 그 자비로우신 시선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으로 인해 넘치는 힘이 되는 그 얼굴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당신 아드님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던
 그 소리없는 두 손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기꺼이 따르기로 결심하고 순례의 여정에 나섰던
 당신의 두 발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평화의 빛으로 이 세상 어떤 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으신
 당신의 위로 가득한 가슴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특히, 복음을 위해서는
 어떤 국경도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위한 당신의 자유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나자렛의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신 당신의 침묵이
 저희의 고독을 충만으로 바꾸어 주시고
 저희가 당신을 닮은 예수의 선교 수녀회 형제, 자매들이 될
 은총을 허락하소서. 아멘.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로 보내온 감사편지

十 둘은 이미 굴러져 있었다.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회원님들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가지 끝으로 솟아나는 작은 갈망의 꽃망울이
귀 기울여 듣는 순응의 기쁨을 노래하는 계절에,
세상의 허위와 이기심을 넘어 모든 시간에
적극적인 죽음을 살으신 예수님은
뜨거운 생명으로 숨이 되어 살아 나셨습니다.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
어 주시는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회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저희들도 힘찬 부활과 함께
이 큰 축제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못지않게 일상의 삶이라는 선교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시는 후원회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녀회에 연락을 주셔서 섬세한 관심으로
돌봐 주시고 선교지의 어려움을 아시고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회원님들의 사랑에 또한 감사드
립니다.

부활의 은총이 회원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
셔서 건강하시고 기쁨 충만한 매일이 되시길
저희 수녀회 수녀들의 마음과 정성 모아 기도
드립니다.

2006년 부활대축일
한국의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회원님들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도 사랑받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종으신 예수님께서서 우리들 마음을 새로운 사
랑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희망넘치는 나날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녀회와 선교지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곳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
시길 기도드립니다.

회장님

이곳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비록
자주 연락은 드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기도 안
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라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 신부님을 비롯한 회장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 부활절에
예수의선교수녀회 일동

十 찬미 예수

남산성당 후원자님들께

한국의 여러 후원자님들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단 '툰즈' 는
한국의 많은 은인들의 노력에 의해 참으로 많은
것들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수많은 환자들과 만나고, 미사
집전과 고해성사, 세례성사, 건축, 마을 사람들에
대한 교육 등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는 이곳에서 여러
분들의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의 미사 중에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2006년 9월 01일

수단에서 이 태석 신부

수신 : 이 옥군 타데 주임 신부님 2006. 09. 20.

대한민국 부산교구 남산성당

참조 : 해외선교후원회 회장 및 간부임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안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 천주교 지목구장
원체슬라오 파딜라 주교입니다. 귀 본당에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40톤의 콘테이너)을 9월 8일 성모님 축일에 감사히 받았
습니다. 하느님의 기적과 같은 큰 도움을 주신 주임 신부님과
많은 신자 여러분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을 보내주시리라고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곳에는 9개의 선교 수도 신부 수녀 단체들이 교회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 수도회에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선별하여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수도회 신부 수녀님들의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대신 제가 전해 드립니다.

소련연방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자유화된 이래로 14년간 선교
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렇게 큰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의 긴 겨울에 이곳 학생들과 가족 형제에게 까지 필요한
것을 파악하여 여러분들의 정성된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주임 신부님과 모든 은인들에게 하느님의 큰 축복속에
가정의 평화와 영육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것 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이곳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힘입어 더 더욱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글라라 수녀 부모님: 김 베드로 황 바울라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원체슬라오 파딜라
몽골 가톨릭 지목구 주교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진심으로 다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오로는 필리비서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의 나이가 78살이 되었지만 주님의 은총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아직 이곳 중국 연길에서 주님의 성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은 늙은 몸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학교 수업하고 교회 협조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에 아주 시끄러운 일이 때문에 (원자폭탄이라고) 조금 걱정하네요! (이곳 연길에서 북한의 경계선은 얼마 안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올해에도 세계평화를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마음안에 아기 예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06. 12월
 임 덕 신부

2006 성탄

글로리아 인엑첼시스 데오!

존경하을 남산성당 본당 신부님,
 부산교구 해외선교후원회 회장 및 간부님

한 해가 어느덧 지나가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시기동안 우리에게 오실 주님과 함께 행복 한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가을에 이곳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많은 선물들을 40톤 컨테이너에 가득히 보내주심에 대하여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선물들은 이곳 가난한 형제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귀 본당의 훈훈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은혜로운 복된 시기에 특히 은인들을 생각하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신 여러분들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살트로 성바오로 수녀회 소속 수녀들 7명은, 전과 같이 극빈한 가정환경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소녀들을 위하여 초등학교 수준의 학교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울란바트르 샌 볼 학교에 101명, 울란바트르에서 약 40km 떨어진 존모드라는 시골에 있는 학교에 96명, 그리고 9km 떨어져 있는 빈민 거주지역, 바양호쇼 유치원에 43명 하여 240여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움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는 이곳 몽골의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안에 나날이 공부 잘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학교에 오는 듯 아침 8시전에 학교에 도착하지요. 독서하고, 수업하고, 점심먹고, 특별활동하고, 등등... 찬바람 스치는 움막집에서 배고프게 살지만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만은 따뜻하고, 배고프지 않고, 즐겁게 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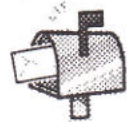
우리는 이 아이들이 성실하게 자라서 큰나무가 되도록 꿈과 사랑을 심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선교생활에 필요한 은총을 많이 빌어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풍성한 은총속에 항상 영육에 건강과 평화를 바라면서
 성탄과 새해에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몽골리아에서 박 진영 미셀 수녀 드림





1. 2006. 2.19 성모여고 2학년 9반 학생일동 후원금 30,000원 보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06. 2.19 운영위원으로 수고하셨던 변상길(가시아노) 형제님께서 사임하고 선교부장 김태익(라우렌시오) 형제님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격려바랍니다.
3. 2006. 6.17 본당 해외선교후원회 창립자이신 오남주 프리모 신부님 영명축일을 맞아 운영위원들이 안락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4. 2006. 7.19 베트남 호치민 성당에서 오신 이창신 이나시오 신부님을 모시고 그곳의 소식과 후원금 1,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5. 2006. 7.23 지난 6월 29일부터 5박6일동안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영남(베드로), 황정순(바울라)부부의 방문 사진전을 결집인 몽골파견 선교사를 돕기 위한 후원 물품 수집운동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개하였습니다.
6. 2006. 8.17 몽골 보낼 후원물품 의류 195BOX, 이불 43BOX, 그릇 43BOX, 가방 14BOX, 잡화 20BOX, 신발 24BOX 총 339BOX가 수집되었고, (주)학산 빅토르 회장이신 이원목(베드로) 형제님께서 의류와 신발을 시가 약 90,000,000원 상당 물품을 후원해 보내왔습니다. 모든 물품을 몽골선교지로 잘 전달하였고 많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7. 2006. 9. 3 평화신문에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 활동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8. 2006. 9. 7 아시아 가톨릭 연합통신이 보도한 한국 천주교 해외선교후원 활동에 대한 남산성당 소개가 있었습니다.
9. 2006.10. 6 콩고의 아볼라 라는 선교단체에서 사도 성 요한 수도회에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콩고는 내전으로 인해 난민과 고아, 굶주림 등으로 고통받고 있어 도움 요청이 절실합니다. 후원바랍니다.
10. 2006.10. 7 그동안 해외선교후원회를 위하여 후원을 해준 이옥군(다테오)신부님께서 은퇴 하셨습니다. 영육간의 건강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합니다.
11. 2006.10.18 8월에 창립한 안락성당 해외선교후원회와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가 오남주 프리모 신부님 초청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12. 2006.10.26 새로 본당에 부임한 김기홍 베르나르도 주임신부님을 초청하여 해외선교에 대한 활동사항등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3. 2006.11.19 평화신문에 "해외선교에 대한 인식 확산 절실"이라는 표제에서 해외선교 활성화를 위한 3가지 제안 등을 제시하면서 남산성당 해외선교 후원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14. 2006.11.29 남미 콜롬비아의 예수선교수녀회 류영월(베로니카)수녀님께서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김기홍 베르나르도 주임신부님과 운영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그곳의 선교현황과 새삶선교센터 운영등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5. 2006.12. 8 운영위원 총무인 이경희(비비안나)자매님께서 총무를 사임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 외인이신 최종자님께서 600,000원을 올해도 후원금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7. 캐리그마 통권 5호 발행을 위해 협찬해 주신 본당 교우 사업장 업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화



안녕하십니까?

저희 Ecuador 선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정성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씨들에 주 성모님께서 은총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멀리에서 기도하며 늦게나마 소식을 전합니다.

온 세상이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우리의 가슴과 머리와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늘 청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선교를 뿌리를 내린지도 이제는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적도의 나라, 작은 어촌 시골 마을에서 이곳 주민들과 동고동락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기쁜 일도, 고통스러웠던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 모든게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위협하는 일 들 앞에서 그래도 의연히 살아 올 수 있음은 결코 그분의 보호하심이지요!

이제는 이곳 출신 수녀님도, 신학생도 있어서 너무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살아가고 있음은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라 믿습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요즘의 세상,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날이 새면 우리의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의 연속 앞에서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희망을 두고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요즘, 이곳에도 엄청난 빈부의 차이가 가져오는 결과로 빚어지는 결과들이 저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희들이 운영하는 진료소에는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들을 상담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는 이 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을 걸어 오시는 것 같습니다. 파괴되어가는 가정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 안에서 부부가 일치되는 삶을 살라고 늘 상담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첫 번째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확인검사를 하고, 면역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도시에 나갈 차비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는 환자들을 설득하여 본당 신부님이 도시에 가실 때마다 그들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데려가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과거를 묻지않고 용서하셨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동성 연애자들이 회개하고, 지난 시간을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할 일이 없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group을 만들어 에이즈 예방교육을 하게 만들고, 젊은 여자 아이들에게는 조그마한 돈을 들여 메추리 사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가정은 한끼의 식사를 줄이기 위해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는 일찍 잠드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는데 정말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도, 체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의 부정 부패는 한계선을 넘어 버려서 도대체 남미의 여러 나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스럽고 사회주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정권을 잡는데 이 나라도 오는 10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후보가 18명이나 된답니다.

저는 이곳에서 복녀 마더 데레사의 말씀을 가끔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진 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곳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Ecuador 선교를 후원해 주시니 여러분의 정성은 더욱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세계화 되어가는 이 세상에서 지구촌 어디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늘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는 저희들의 조그만 노력과 후원회원님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크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해외선교위원회 한분 한분과 본당 신부님께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파티마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곳 Ecuador 예수그리스도 수녀회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8월 24일 2006년

Ecuador, Gvayaquil 대교구 Palmar 본당

김 Veronica 수녀 드림 (예수그리스도회수녀회 소속)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문

자비로운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온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가 돕고자 하는
선교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모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직도 당신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자하는 선교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가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저희의 활동이 결코,
저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와 자선과 봉사안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체험하며
이세상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희의 모임이 더욱더
충실해지기를 비오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지극히 사랑하옵 예수님,
은인들을 기억하시어
선교사업을 위하여 도와주소
모든 은인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 ◆ 범교구적 해외선교와 국내해외선교기관을 후원합니다. (선교회 · 수도회)
- ◆ 해외선교후원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으며 본당사무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 ◆ 후원회비는 월2,000원 이상이고, 본당사무실에 납부합니다.
- ◆ 매월 첫째주일 오전9시미사는 해외선교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봉헌이 있습니다.
- ◆ 궁금한 사항은 남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로 문의 바람.

(주) 금정소방

(면허 제90-97호)

대표이사 조 진 호 (보나벤투라)
장 환 옥 (마리아)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기구 도·소매
소화기 판매, 수리, 종약 / 소방시설보수공사
특수소방설비전문 / 방염 처리 전문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420-20 (금정구청 후문)
TEL : (051) 514-0119, 517-0091~2
FAX : (051) 517-0092
E-mail : 119kjfire@hanmail.net

APT리모델링 전문업체

성원 인테리어

도배, 장판, 페인트, 화장실
온돌마루판, 샷시, 씽크대
구조 변경, 불박이장, 조명, 버티칼
(두실전철역 위 신동아, 벽산아파트 밀)

박 길 현 (다니엘)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67-1
견적무료상담: 080-534-0404
TEL : (051) 582-7 5 9 2
H.P : 011-561-2 5 2 7

아로마 산부인과의원

(요실금수술, 부인과 미용수술 전문)

원장.전문의 박 호 (요한)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0-4번지
TEL : (055) 3 8 7-9 3 0 0
H.P : 011-9531-7 4 6 6

안경, 콘택트렌즈 합인매장 ▶ 누진다초점렌즈 전문

라테팡스안경

(두실점, 버스정류소 앞)

하 명 수 (에드몬드)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63-25
TEL : (051) 514-8 3 0 0
H.P : 011-568-7 4 4 7